

아동보호 유관기관 간 실무협력 강화한다

-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 개최(6.15.~16.) -
- 전국 아동보호서비스 종사자 역할 이해 및 협력 강화 논의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(원장 김유임)은 6월 15일(월), 16일(화) 양일간 제주에서 「2026년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」을 개최한다.

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합동 워크숍은 아동학대 대응, 입양, 자립 지원,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와 아동 보호기관 종사자 450여 명*이 참석하며, 아동보호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유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아동보호전담요원, 아동학대전담공무원, 아동통합사례관리사, 입양 업무 담당자, 아동보호전문기관, 가정위탁지원센터, 자립지원전담기관, 아동복지시설, 지역상담기관

이날 행사에서는 아동보호에 관한 분야별* 심층 토의를 통해 기관 간 서로 다른 업무 영역을 이해하고 지역별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. 또한 고난도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, 지방정부의 후견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보호대상아동 후견 교육도 실시한다.

* (논의주제) ▲시·도 및 시·군·구간 아동보호 연계·조정 활성화 방안, ▲입양절차 진행 시 기관 간 협력방안, ▲고난도 사례 아동의 원활한 보호지원 방안, ▲자립지원 강화와 기관 간 협력방안, ▲학대피해 아동의 사후·사례관리 방안

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되는 아동보호 현장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정비 및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.

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“아동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, “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<붙임> 2026년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 개요

담당 부서	인구사회서비스정책관실 아동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연 (044-202-3410)
		담당자	사무관	신연식 (044-202-3419)

□ 개요

- (목적) 아동보호체계 내 학대, 가정위탁, 자립, 시설 등 유관기관 간 실무협력 활성화 및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통합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
- (일정 및 장소) 6월 15일(월) ~ 16일(화), 제주
- (참석대상) 보건복지부, 국가아동권리보장원, 지방정부 아동보호 업무 담당자* 및 보호기관** 종사자 450여 명

* 아동보호전담요원, 아동학대전담공무원, 아동통합사례관리사, 입양 업무 담당자

** 아동보호전문기관, 가정위탁지원센터, 자립지원전담기관, 아동복지시설, 지역상담기관

□ 세부 내용

- 아동보호 주요정책 추진 방향 발표(보건복지부)
- 아동보호서비스 세부 주제별 협력 방안 논의
 - 아동 중심의 통합적 보호·지원을 위한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·소통 체계 강화 방안
- 보호대상아동 후견 업무 교육 및 종사자 정서지원 프로그램

□ 기대효과

-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소통 강화와 현장 중심의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아동보호체계 구축 운영 내실화